

내실있는 학생참여 교수채용의 필요조건

기획취재-2학기 교수공개채용을 평가한다

“상반기 교수공개채용은 5, 6월 정세의 긴박함과 계속되는 투쟁 속에서 학우들이 지치고 자재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채용과정상의 공개를 통한 민주적 교수채용 원칙을 많은 학우가 공유하지 못한 점을 요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1학년도 2학기 교수채용을 끝낸 최장국(신방·3)교수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위원장의 평가이다.

아직까지 교수채용이 되지 않은 학과가 재공고를 내고 10월중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이 있으나 2학기초 교수공개채용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올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장국교수위원장은 “처음에 교수채용에서 연대투쟁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성원들의 참여도나 주체들의 지도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과에 중앙의 힘을 집중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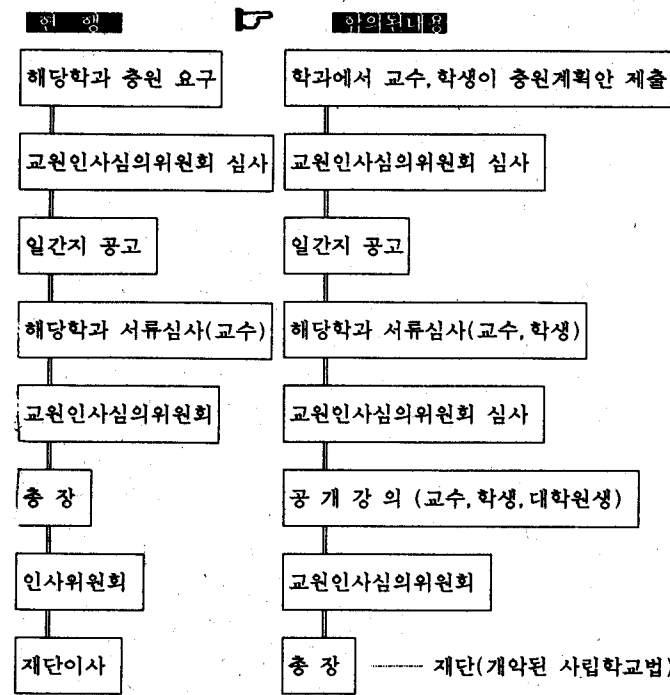
한편 이번 연대투쟁의 부분만큼 교수공개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참여의 형태와 내용성이다. 즉 서류심사와 공개강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교수채용이 실현된

실시조차 못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서류심사나 공개강의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연대투쟁의 오류와 5, 6월 투쟁과정에서의 준비 미흡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는 다른 형태의 학생참여, 즉 서류심사와 공개강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느냐는 제기에 대해 “다른 형태로는 학생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중앙 교심위원에서 학교측과 교수채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



표했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재공고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심위측은 교수채

31일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 서울·수원 캠퍼스의 미충원학과에 대해 광고가 나갔다.

또한 두번째로 ‘3배수 추천제’의 폐지이다.

3배수 추천제란 채용 해당과에서 지원한 교수들중 3인을 뽑아 이들을 순위 매겨, 우선 순위자가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교심위는 전공자가 1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부됐던 철학과와 실례를 들어 3배수 추천제는 학교당국이 선정과정에서 우선 순위자가 아닌 후보가 순위와 관계없이 임용될 수도 있는 폐단을 갖고 있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많은 학생들이 91학년도 2학기 교수채용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진정 일반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용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재공고를 냈다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수채용 재공고는 지난

중앙교심위의 공개강의등 전략 실속없이 진행 대중적 기반통한 학생참여 확대가 관건

과의 경우도 영교과가 서류심사지를 교수·학생이 작성, 학생이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과의 경우 거의 서류심사의 과정에서 학생참여라는 공개강의의

고 확실시하는게 주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심위는 나름대로 이번 교수공개채용의 문제점을 지난 4일 소집한 ‘자주학원’을 통해 발

다. 제가 학생대나 군부부시절 불심양면으로 도와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마음가짐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

다. “저의 재학시절과 지금의 면학환경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우리때는 선행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탓에 졸업생 모두가 개척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역사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니 지금부터는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여권’이라는 것이 한창으로 세계시장 어느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부하는 후배들이 어렵다고 전한다.

현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과피는 결국 손실입니다. 모든 행위가 정화될수 있어도 과피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난주 청량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차가 중앙대자보앞에 세워져 부서진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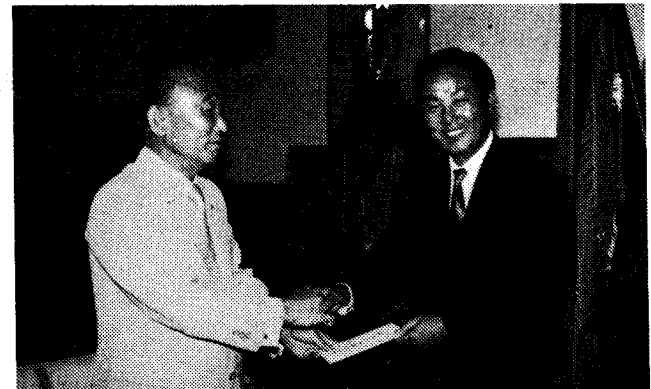
(현)

인문

발전기금 기부한

이건수(정의 12회·졸)·동문

“최선 다하는 후배에 보탬 됐으면”



지난 6일 법대와 ROTC에 발전기금으로 1억2천만원원을 회사하는 동 본교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져온 이진수(정의12회·현 동아전기 사장)동문을 만나 보았다.

“과와 땅의 결실인 거금을 학교에 선풍 내놓기란 쉽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

다해 살고자하는 후배를 한명이

라도 찾을수만 있으면 전배로서 보람을 느끼겠다”고 작은 바램을 내세운다.

자신의 생애 있어서 가장 큰 전환기는 ROTC 생활중 자신을 동료들이 학도군단장으로 뽑아 줄때 였다고 밝히며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보지 않은 도서를 나가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의 내가 있게 된 것”이라며 당

“시장의 세계화에 중요한건 실력”

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

며 발전기금 기부의 동기를 몇

작은 웃음과 함께 밝히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작은 성의가 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시·동료들에게 오늘의 공을 돌린다.

군 전역후 미국으로 건너가 남다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진수는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은 조영식 총장님입니

해설...총·학장회의 전철유치 건의서제출을 보며

본당-신갈-안산간 전철 연장을 위한 움직임은 작년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 전철유치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올해 1월 각 학교차원으로 15개대학 총학장회의를 구성하여 인복위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구체화시켜 왔으며 이번 건의서 제출로 가시화된 것이다.

지난5월에 경기도청에서 제출한 건의서와 이번엔 총학장회의에서 제출한 건의서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경기도청의 건의서는 일부 관계기관에 제출한 반면 총학장회의에서 제출한 건의서는 국회의원, 청와대등 각계각층에 걸쳐 보내졌다

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한편 대체적으로 수원캠퍼스에 있어서 신갈전철유치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안이며 수원캠퍼스에 산적해 있는 기숙사, 캠퍼스타운 조성문제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철로 인해 교통난이 해소되면 현재 학교에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쿨버스 운행비를 우선 학내복지로 투

신갈전철유치로 복지문제 해결모색

입할 수 있으며 오후 늦게까지 운행되는 전철로 인해 그동안 공동화현상을 보여왔던 방과후의 시간들을 학생들이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애지근 기숙사 뒤쪽의 영통리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돼 장기적으로 아파트촌의 형성됨에 따라 수원캠퍼스 주변의 유동인구는 그만큼 증가되기에 현재 신갈전철유치의 당위성은 더욱 증폭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갈까지의 전철연장계획이 분당선개통이후 곧바로 착수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이상에 앞서 살펴본것과 같이 수원과 캠퍼스 주변의 인구증가추세와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고려해 본다면 전철은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현재 기행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수원캠퍼스에 산적해 있는 기숙사, 캠퍼스타운 문제해결을 시발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철을 유치해내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세윤 기자)

해설...중·장기 발전계획 점검

1988년 발표한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4년째를 맞이하면서 많은 부분의 결과물들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1백만인 도서 수직, 교수연구단체 도입, 법과대학, 치과대학 및 치과대학 학부속병동등은 완료된 상태이며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리대-정경대와 수원캠퍼스 공대-체대-산업대-사회과학대-자연대를 잇는 전산망이 이미 방학중에 건물자체에 대한 공사를 1차년도에 완료했으며 지하공사와 나머지 건물의 공사는 2·3차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다.

치대부속병원 내달 3일 개관 학내복지 고려한 사업 우선돼야

또한 학내 전산망 구축이 1차년도와 2·3차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본관-구공대-문

이와 함께 내년 2학기부터 실시되는 복수전공제와 우수기업과의 산·학협동, 교수연구제 도입 면학분위기와 연구공토 조성 위한 다양한 작업이 실시

되는 계획중에 있다.

획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학교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도나 파급효과는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기태 기자)

미리 준비 되어야할 ‘학사행정’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가래로 막을 일이 커져서야 더 큰 도구를 사용해서 수습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가 확대될수록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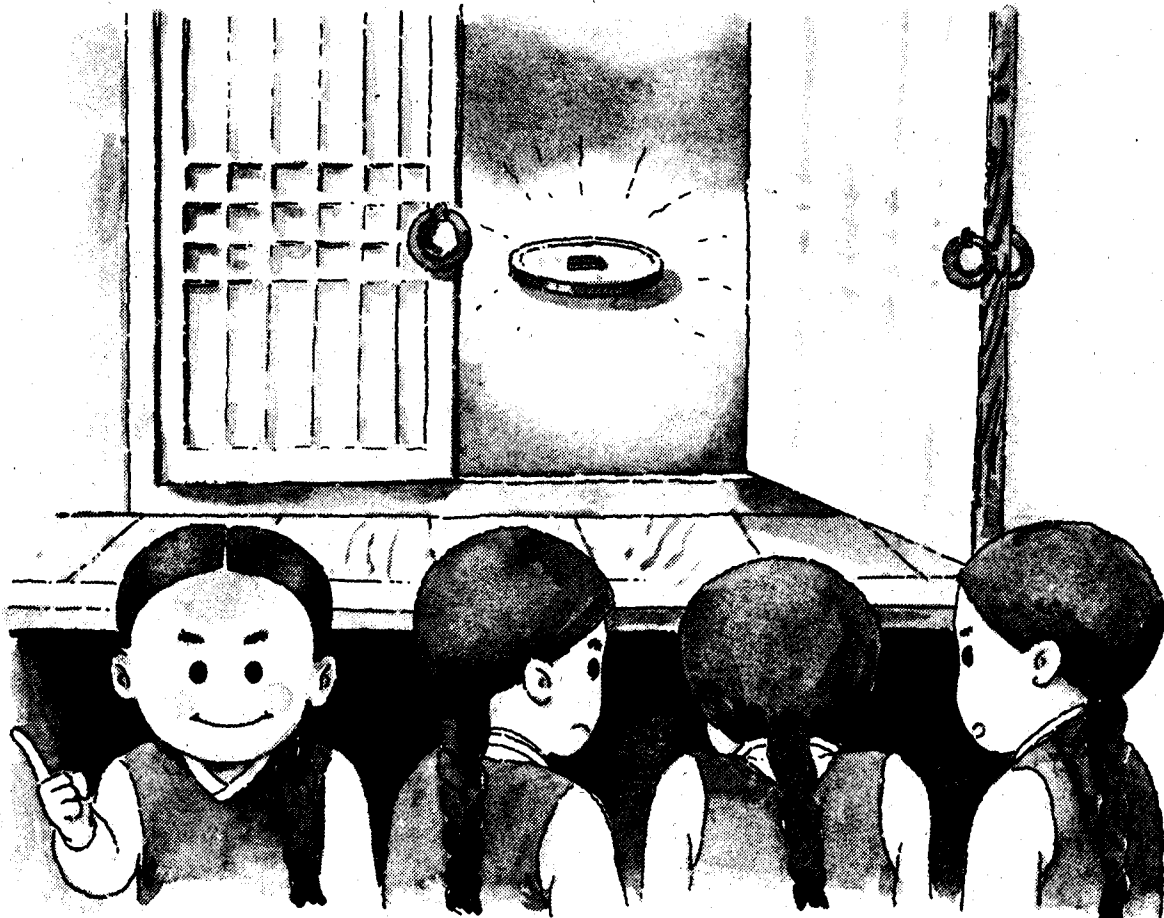
▶법대 302호 강의실로 지정된 ‘성과 사회’ 과목이 수강신청 학생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큰 강의실에도 불구하고 서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강사가 문리대에서 강의하는 자신의 ‘여성과 문화’로 수강신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의시간을 조정하기가 곤란한 학생이 많고, 또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2~3정정도 불편하게 서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학개론’의 경우 애초에 음대 강의실에 배치됐으나 수강학생에 비해 강의실이 좁아 음대생을 제외한 80여 명이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기를 통고 받았다. 이번에 생긴 두 사건(?)은 그간 교양과목개편과 강사임용 등에 대해 학생들의 대표로 활동해온 총학생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중재와 교무처의 노력으로 지난주 모두 해결되었다.

▶매학기 끝날무렵 다음학기수업에 대한 예비수강신청제도가 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다면

이번의 경우와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인원을 파악하고 수강인원과 교양과목과 개·폐강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 ‘당국이 부족한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수강신청제 인원이달린 과목을 폐강함에 따라 교양선택과목이 한정됨에 따라 몇과목으로 수강인원이 편중된다는 사실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수강신청정정과 복학생 수강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각과목 총수강인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폐강만이 강의실문제 해결의 최선은 아니며 남은 과목의 추가인원을 예상한 강의실 배정을 해야할 것이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이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훈장님이 동전을 내밀며 학동들에게 물었습니다.
학동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

니다.

이윽고 한 학동이 발뚧이치며 동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 동전으로 양초를 한 자루 사 들고 들어왔습니다.

학동이 양초에 불을 밝히자 그 빛으로 방안이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는 슬기와 진취적사고— 바로 동양그룹이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동양그룹은 사고의 혁신과 창의적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